해양도립공원 샅샅이 보니 가치 빛났다

<추자·성산일출·우도>

국립공원연구소, 도내 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결과
매·흑비둘기 등 멸종위기종 포함 200여종 추가 발견
현재 총 1584종 생물 확인… 오는 12월 조사 마무리

'해양도립공원'인 추자·성산·우도가 생태계의 보고(寶庫)임이 재확인됐다. 지난 1년간 이들 지역의 육상·해양 등을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종 등 자연자원 200여종이 추가 발견됐다.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소는 11일 오후 오리엔탈호텔에서 제주 추자·성산일출·우도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공원별 조사 결과를 보면, 추자해양도립공원의 서식종이 39종이 추가 확인돼 총 687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역의 법정보호종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조류 1급인 매와 2급인 흑비둘기가 확인됐다. 또 한국고유종인 푸른빛 붉은혀, 민털보라색우무 등 해조류가 살고 있었다.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은 56종이 추가 확인돼 총 445종으로 늘어났다. 법정보호종은 멸종위기 연체동물 2급종인 나팔고둥과 2급인 긴가지해송, 둔한지총산호가 나타났다.

우도해양도립공원에서도 122종이 추가돼 총 452종이 됐다. 멸종위기 해조류 2급인 그물공말과 산호충류 2급 해송 등이 발견됐다.

3개 지역을 종합해 보면 이번 조사에서 217종이 추가됐으며 총 1584종의 육상·해양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번 조사에서 공원계획 변경을 통한 해중전망대 설치도 검토됐다. 해중전망대는 해상 방향으로 길이 130m·폭 3m의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연구소가 이 지역의 생물종을 조사한 결과 총 3목 10과 21종의 서식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해조류가 풍부해 해양어류들의 서식지로 적합하다"며 "특히 볼락 유어가 확인됐으며 볼락 등의 산란처로 적합하다. 단, 조사지 내 국내해양어류 국가보호종 출현은 없다"고 결론 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착수보고회 때 제기된 5개 해양지역의 산호충류 서식종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산호충류는 마라해양 34종(11종 추가)·서귀포해양 70종(3종 추가)·추가해양 7종(3종 추가)·성산일출해양 24종(3종 추가)·우도해양 4종(4종 추가) 등 총 139종(24종 추가) 서식이 확인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시작됐으며, 올해 12월에 마무리된다. 조사분야는 육상 7개·해양 9개·인문 5개 등 총 21개이며 공원 상세 자원현황을 파악하고 종목록을 작성, 공원자원 보전정책 추진 및 관리 전문성 제고 등이 목적이다. 앞서 추자(95.292㎢)·성산(16.156㎢)·우도(25.863㎢)는 2008년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소진기자

제주 추자·성산일출·우도 해양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 결과 멸종위기종 다수가 확인됐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조류 1급 '매', 멸종위기 해조류 2급 '그물공말', '볼락 유어'. 사진=국립공원연구소 제공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설명회 무산
"기본계획 즉각 철회" 갈등만 재확인

성산서 예정된 설명회서
반대측 단상점거 등 저지
국토부, 시작 못한 채 철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반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저지로 무산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저지로 설명회를 시작도 못한 채 철수했다.

반대 측은 설명회 시작 전부터 성산국민체육센터 내 단상을 점거했다. 이어 설명회 시작 10분전 국토부 관계자가 체육센터로 들어오자 마이크를 빼앗았고 결국 국토부 측은 발길을 돌렸다.

아울러 국토부 관계자들이 설명회를 포기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2공항 반대 측은 차량 이동을 저지하면서 한때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날 제2공항 반대 측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보고회를 계획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국토부는 거짓, 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단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와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보고회 등이 마무리됐다고 보고 공람 기간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초에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11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던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2공항 반대측 주민 등이 단상을 점거하고 제2공항 기본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눈 가리고 아웅? 행정처분 어물쩍"

중문 휴양콘도 수분양자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사업자 대처 부적절 지적
서귀포시 "이행여부 검토"

속보=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에 들어선 관광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인 씨사이드아덴리조트 수분양자들이 사업자가 분양사기(**본보 6월 21일 4면**)에다, 행정처분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씨사이드아덴 수분양자들은 11일 서귀포시를 방문해 "시가 사업자에게 행정처분명령을 내렸는데, 사업자는 '행정 제출용'과 별도로 현행법상 위법한 개별 위탁운영 진행을 밝히는 등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명백한 분양사기"라고 주장했다.

서귀포시는 190실 규모의 씨사이드아덴리조트측에 5월 29일 "제주도 관광진흥조례에 따라 휴양콘도의 주거용 분양이 금지됐는데 '주거형'으로 홍보해 '주거용'으로 오인 소지가 있다"며 "주거형 리조트의 의미를 계약을 체결한 공유자·회원들에게 직접 해명·설명하라"는 행정처분명령을 내렸다. 또 수분양자들과 위탁자와 수탁자가 운영수익을 7:3 비율로 분배한다는 임대차운영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공유자대표기구를 구성해 협의해 객실이용계획서를 수립하고, 객실운용에 따른 수익은 시설 운영·관리비에만 사용(수익배분 금지)하라"고 처분했다.

행정처분에 사업자는 공유자대표기구에 참여하라며 만든 30여명의 수분양자 SNS방을 통해 "'주거형'은 회원들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휴양과 관광을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연중 상시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분양 당시 상시 거주가 가능한 세컨하우스로 분양받았고, 현재 거주중인 이들도 있는데 이를 회원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안내문도 시청 제출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에선 위탁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분배하지 못한다는데, 행정 제출용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식"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서귀포시는 "씨사이드아덴측에서 이달 5일 제출한 지시사항 이행서 검토를 다음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씨사이드아덴측 분양 관련 민원에 제주도감사위원회도 현재 관련자료를 확인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범가자미' 양식길 열리나
연구원, 수정란 생산 성공

최고급 가자미류인 '범가자미'의 양식 가능성이 확인돼 광어 단일 품종에 집중된 제주도 어류 양식업 구조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지하해수를 이용한 새로운 양식품종인 범가자미의 양식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범가자미는 줄가자미, 노랑가자미와 함께 최고급 가자미류 중 하나로 손꼽히는 어종이다. 서해와 남해에 주로 서식하며, 자원 감소로 어획량이 적어 고가에 거래된다.

앞서 범가자미 양식기술개발연구는 1990년대 일부 시도됐다. 하지만 어미 확보와 대량 수정란 생산기술이 확립되지 않아 양식 현장으로 보급되지 못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올해 사육 중인 어미를 이용해 성 성숙 유도기법에 의한 수정란 생산을 연구, 수온조절과 호르몬 투여를 통한 범가자미 인공 수정란 생산에 성공했다. 다만 연구원은 부화율 상승과 초기 사육 매뉴얼 적립 등 과제가 남아있어 본격적인 양식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해 양성기술을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소진기자

제주시 모범음식점 신청접수

제주시는 음식점의 위생적 시설 운영과 간소한 상차림으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우선 지정해 관광제주 이미지를 제고해 나간다고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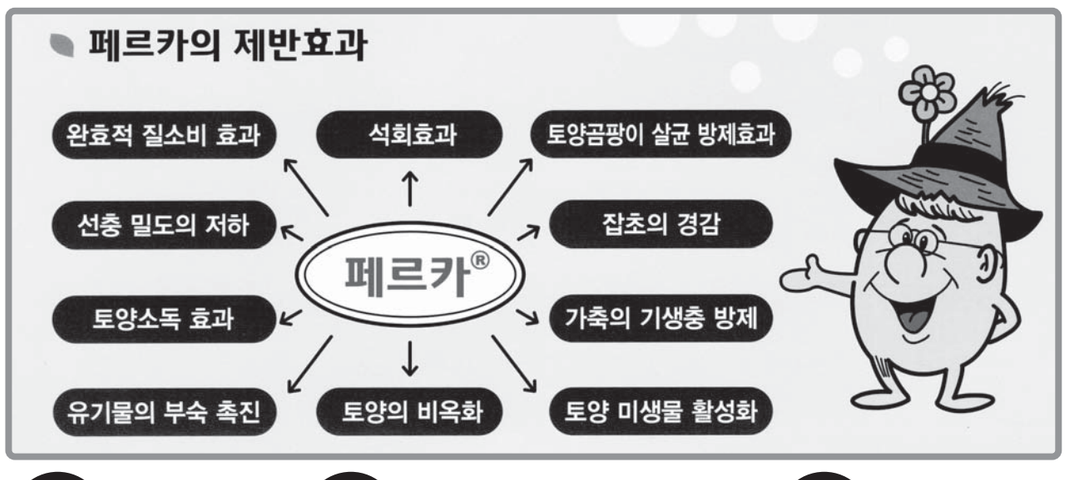
2020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9월30일까지 제주시 위생관리과(728-2621~7)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지부(752-4563)로 신청하면 모범음식점 평가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 제주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게 된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경우 위생점검 2년간 면제(민원접수 및 식중독 의심 신고시 제외)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5~40% 감면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홈페이지 홍보 및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지원 ▷각종 표창 추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고대로기자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수입]

한번의 시비로 비료와 흙과 수분반응에 의한 농약성분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사용기준 25K – 1포 (100~400평)사용

취급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관주, 엽면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흙향기

직원구함 비료판매 유 경험자 년 4천이상 보장, PC가능자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친환경 전통건축 [한옥에서의 건강한 삶], 전통건축 선자연이 실현합니다.

시 공
- 전통건축(살림집, 사찰)
- 전원주택 시공 및 리모델링
- 전통 구들 시공
-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수리기술자] 직접 시공
- 전통건축 대목이 직접 시공참여 기술지도
- 나무, 흙, 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건축
- 제주 전통건축 양식 및 기후 반영한 설계 시공
- 품질 우선 시공, 합리적인 건축비

상담 : 010-5308-5796, 064-764-0488

전통한옥문화재사랑 선자연

방수

- 폴리우레아방수 -

◆ 지붕, 옥상 방수 및 도장공사
◆ 축사, 냉동창고, 양식장, 수영장 방수
◆ 저수조, 하수처리장 내·외벽 방수
◆ 물탱크, 원유저장탱크, 주유소 바닥 코팅
◆ 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강관 코팅
◆ 철재 부식 코팅, 아파트 주차장 바닥
◆ 산업용시설물, 발전소, 학교, 관공서 옥상
◆ 구조물의 모든 부위 방수, 콘크리트 부식 방지
◆ SMC, FRP 물탱크 제작, 수리

A/S기간 : 3년 보장

주식회사 내쇼날건업
내쇼날FRP페인트총판

– 방수, 도장 전문건설업, 여성기업 –

TEL : 064-727-9800 H.P : 010-3699-4850
FAX : 064-753-8850 010-3211-0218

national90@naver.com